

독 운동의 사회 참여를 위한 과제가 될 것이다.

지난 세대 가운데 한국 교회는 엄청난 불의와 억압 앞에 침묵해 왔다. 그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라 무지의 잘못이요 신학적인 잘못이었다. 우리의 신학의 과제는 교회 성장(Church Growth)이었고, 정치 참여(Political Involvement)는 고의적으로 배제되어 왔다. 더구나 기독교층의 헤게모니 전략에 편입되어 눌린 자들을 향해 분명히 서지 못했다. 이것에 대해 우리는 분명한 신학적 자성을 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대학가의 4%만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 다가오는 통일 한국을 향한 변혁기를 앞두고 참여를 향한 더 많은 논의를 제안한다. 한국 기독교의 쓴 뿌리, 사회 참여 콤플렉스를 이제는 극복해야 한다.

장애인 선교를 위한 교회의 역할

정용균 (신대원 3년)

서론

A. 연구 동기와 목적

인간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고 평생을 살아간다. 이런 사람을 일러 우리는 장애인(障碍人)이라 한다.

사람은 모두 장애를 입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장애를 입지 않은 사람(비장애인)은 다행히 장애를 입지 않고 살고 있을 뿐이지 언제라도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속에 살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바로 자신에 대한 관심일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지난 세월 사회의 편견과 멸시라는 멍에를 지고 힘겨운 삶을 살아야만 했다. 장애인은 늘 '사회의 소외자'였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주변의 여러 모습에서 보게 된다.¹⁾

1) 장애인 기관(복지 시설이나 특수 학교)을 설립하고자 할 때 번번이 겪게 되는 지역 주민의 반대는, 일반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 얼마나 깊

그러나 다행한 것은, 요즘 들어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 계층²⁾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심지어 텔레비전 광고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볼 수 있게 되었다.³⁾ 그러나 이러한 것도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장애인을 위하는 것처럼 나팔 불어 대던 기업이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지 않아 벌금을 많이 낸 기업으로 뽑혔다는 사실이다.⁴⁾ 사회 인식이 제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자신을 치장하기 위한 수단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회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것이 없다. 한국 교회는 그 규모와 능력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 실천에 매우 인색한 가운데 있

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이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 2) 사실 계층이란 말도 적당치 않다.
- 3) 한때 삼성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을 모델로 하여 장애인의 차별이 없는 사회, 그곳에 세계 일류가 있다고 함으로써 마치 삼성이 장애인의 차별을 두지 않는 회사인 것처럼 선전했다.
- 4) 1995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30대 재벌기업(2백99업체)이 장애인 고용을 가장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0.23%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전체 근로자의 2%)이 적용되는 3백인 이상 민간업체의 고용률 0.43%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한보 그룹은 0.05%로 30대 재벌기업중 가장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보였으며, 5대 재벌 중 선경은 0.09%, 삼성은 0.1%를 각각 기록해 장애인 고용을 특히 기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와 대우, 엘지그룹의 경우 각각 0.25%, 0.5%, 0.2%의 고용률을 보였다. 한편 노동부가 지난 1995년 9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정부나 자치 단체의 경우도 장애인 고용률은 2%에 현저히 못 미치는 0.83%에 그치고 있고 정부 투자 기관과 출연기관은 각각 0.63%, 1.05%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감사원이 총무처와 서울시 등 31개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채용율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관이 지난 91년부터 94년까지 신규채용한 공무원 4만4천5백46명 중 장애인은 1.28%인 5백71명에 불과했다. 한겨레신문, 1995년 27일·수요일, 22면.

다. 아직도 교회는 복음 전파에 집중해야지 가난한 이웃이나 장애인을 위해 사회 사업을 하는 사회 사업 단체가 아니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생각이 아주 성경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그것(교회가 사회 사업 단체가 아니라는 생각)은 일면 옳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 삶의 전반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에서 극명하게 표현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른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극단적으로 구분하여 왔고, ‘영적인 것’의 추구에만 너무 몰두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⁵⁾ 이런 결과로 장애인과 같은 사람은 복음에서마저 외면되고 소외되어 왔다.⁶⁾

사실 기독교인이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 삶의 모본인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이다. 성경을 통해 보는 예수님의 삶은 아름답기 그지없다. 그분의 삶을 어떤 교리로 치장하든

- 5) 김명용, “교회 갱신이 시급하다”, 『복음과 상황』48호(서울:복음과 상황, 1995), 72-73. 참조.
- 6) 현재 현재 우리 나라의 장애인들 중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못하나, 장애인들 중에 대강 3% 내지 5% 정도가 기독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구나 이것은 우리 나라 장애인 인구를 100만 명으로 보았을 때의 퍼센티지로서 장애인 가운데 기독교인은 3만 내지 5만 명 정도(많게 잡아야 8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 나라 인구의 1/10정도인 4백만 내지 4백 5십만 명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안해 본다면 장애인 중 기독교인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천만 이상이 된다고 하는 우리 나라 전체 기독교인 수에 비하면 3만 내지 5만의 장애인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전체 기독교인의 1% 정도에도 못 미치는 숫자이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3만 내지 5만이라는 숫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면 적어도 장애인이 30 내지 50명은 모여야 되고, 천 명이 모이는 교회라면 3내지 5명의 장애인이 교회에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 나라의 일반 교회 안에서 장애인들을 한두 명이라도 쉽게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이다. 김영길, “장애인문제에 대한 교회의 대책과 역할”,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3년), 90.

간에 그분 삶에 소외된 사람을 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허상에 불과할 것이다. 예수님은 일생 소외된 사람과 함께 했다. 그들 삶에 주목하고 관심을 가졌다.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서 그들을 치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동등하게 나누어주셨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던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소외된 사람에게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의 직무 유기라고 할 수 있다. 서구에서 일찍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이런 의식이 결핍되어 있다.

한국 교회는 1990년대 들어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진단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이웃과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잘못 이해된 영성 추구와 복음 전파에만 몰두한 결과,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⁷⁾

위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소외된 이웃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다. 이 글은 장애인 선교에 관한 것이다. 장애인과 장애인 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 선교를

7) 1995년 10월 14일 기독교신보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교회의 성장(물론 숫적인 증가를 말한다)에 제동이 걸렸다고 한다. 예장합동, 예장통합, 예장고신, 기장, 기감, 기성 등 주요 6개 교단의 94년 교세 현황은 93년에 비해 1% 이하의 성장을 보였다. 이것은 사실 급격한 하락 추세를 말하는 것이다. 기독교신보는 그 주요 원인으로 <청년층 예배 참가 저조> <교과 분열, 교권 다툼> <사회봉사, 구제 인식>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개신교)의 교세가 감소하는 것과 반대로, 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 한국 가톨릭 교회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다. 어떤 이는 그 핵심적인 이유를 가톨릭 교회가 이웃과 세상에 대한 책임을 상대적으로 잘 감당하고 있다는 한국 국민의 인식 때문이라고 했다. 가톨릭 교회의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된 이웃에 대한 찬란한 실천과, 명동 성당으로 상징되는 한국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향한 가톨릭의 노력은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오늘의 가톨릭 성장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판단이 얼마나 참된 것인가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필자 주변에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로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다 가톨릭으로 옮겨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위해 교회가 담당할 역할은 무엇인지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상대에 대한 무관심은 상대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장애인 선교에 대해 무관심하고 소극적이며 무력하다면, 장애인 선교에 대해 그만큼 모르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장애인 선교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다루기 이전에 장애인과 장애인 선교에 대한 이해에 많은 비중을 두고 다룬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탕을 튼튼히 할 때 어떤 모양으로든 집을 지어 나갈 수 있기에.

B. 연구 방법

이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장애인의 이해, 둘째 장애인 선교의 이해, 셋째 교회와 장애인 선교가 그것이다. 장애인 선교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선교의 대상(첫째 주제)인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1장에서는 우선 장애인의 개념과 장애 범위와 숫자 그리고 장애 발생 원인을 일반적인 관점과 신학적인 관점으로 살펴보고, 특히 예수님은 장애인에 대해 어떻게 보셨는가를 통해 개인의 장애 발생 원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세세한 논의는 피하고 장애인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임의로 선택하여 논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제2장에서는 장애인 선교에 대한 이해를 다루었다. 여기서는 먼저 장애인 선교의 두 번째 주제인 선교에 대한 개념을, 최근 선교에 대한 이해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보고 올바른 선교 개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어서 장애인 선교의 명칭에 대해 다루었는데, 장애인 선교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교(Mission)로 볼 것인가 아니면 목회나 사역(Minister)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장애인 선교가 선교(Mission)로서 불릴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을 살폈다. 그리고 장애인 선교의 성경적 배경과 근거를 구약과 신약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과 삶의 모습에서 장애인 선교의 가능성과 당위성에 대해 살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장애인 선교의 특성과 성격을 정리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제3장에서는 교회와 장애인 선교의 관계를 살폈다. 먼저 한국 교회의 장애인 선교의 역사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한국 교회가 초대 한국 교회에서 장애인 선교가 어떻게 시행되었는가를 살피며, 그런 전통이 어떤 이유로 단절되었는가를 하는 것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자성의 기반을 두기 위함이다. 그리고 나서 장애인 선교 단체와 교회의 관계를 살피며 올바른 관계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장애인 교회와의 관계도 살피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가장 실제적인 문제로서 한국 교회가 장애인 선교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 특히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다루었다.

이 글은 주로 문헌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밖에 필자가 장애인 선교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장애인 선교 단체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과 나눈 면담이나 전화 통화를 통해 얻은 자료를 활용했다. 이 글은 학술적인 깊이는 그다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장애인 선교와 복지에 관련된 글들이 몇 나와 있으니, 이제 장애인 선교와 복지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장애인 선교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를 고집하였던 이유는 아직 한국 교회가 장애인 선교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나름의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다시 말해서 아직도 이와 같은 글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⁸⁾

8) 이 글의 “장애인 선교를 위한 교회의 역할”이란 제목은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한 바 있다. 그러나 똑같은 제목을 쓴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아 그대로 쓰기로 했다.

I. 장애인에 대한 이해

A. 장애인의 개념

우리는 흔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편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장애’ 또는 ‘장애인’이란 말은 자주 쓰이고 있으나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장애의 실체와 장애인의 기준과 정의를 분명히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⁹⁾

다시 말하면, 장애의 원인이나 유형 그리고 그 정도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정의와 개념은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서로 달라진다. 시대나 지리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사회적 환경에 따라 서로 장애 또는 장애인의 개념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학자마다 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쓰고 있는 실정이다.¹⁰⁾

우리 나라 장애인 복지법¹¹⁾에서는 장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

9) 여광웅, “장애자, 그들은 누구인가”, 『장애인』(서울:두란노서원, 1991), 53.

10) 정형석, “한국교회의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4), 16. 참조.

11) 1989.12.30. 법률 제4179호에 의해 기존의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심신장애자’라는 용어가 ‘장애인’으로 변경되었다. ‘장애인’이란 용어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장애우(障礙友)’로 변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장애인을 일컫는 용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말과 생각이 가지는 밀접한 관계 때문이다. 말은 생각의 반영이고 말이 생각(의식)을 규정하기도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말은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감성적인 기능에 영향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느낌과 이성적인 생각을 이끌어가는 힘을 가졌다(여기에 관해 더 알고 싶은 사람은 이규호의 『말의 힘』을 참조하기 바란다). 장애인을 일컫는 말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것(말)이 대상(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의식을 교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과 관계된 용어에 대해 간단히 살피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이라는 말에 대한 상대적인 용어로

하고 있다. “장애인이란 함은 지체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또는 정신 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¹²⁾

국제 노동 기구(ILO)는 장애인을 “신체 또는 정신상의 결함 결과로 적절한 직업을 확보 유지해 나갈 전망이 없는 실질적으로 손상 받은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다.¹³⁾

1975년 2월 9일, UN 총회에서 ‘장애인 권리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이 채택되었는데, 제1조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이란 선천성이든 후천성이든 관계 없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개인 생활은 물론 사회 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¹⁴⁾ ‘장애인 권리 선언’에서 볼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은 장애와 장애인의 범위를 넓게 다루고 있다는 점

서 ‘정상인’ ‘일반인’ ‘비장애인’ 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쓰이고 있는데, 장애인 관련 분야에서는 ‘정상인’이나 ‘일반인’이라는 용어가 그 상대적 개념으로서 ‘장애인’을 ‘비정상인’,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여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보아,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리고 ‘소경’을 ‘맹인’ 또는 ‘시각 장애인’이라고 하고 ‘병어리’와 ‘귀머거리’는 ‘언어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이라 한다. ‘절름발이’는 ‘지체 장애인’, ‘곱추’는 ‘척추 장애인’, ‘저능아’, ‘백치’ 또는 ‘정박아’는 ‘정신지체 장애인’ 등으로 부른다. 이로 보건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성경의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들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본의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 번역을 할 때, 이런 점에 각별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기존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설교할 때만이라도 용어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다.

12) 장애인복지법 제1장 2조.

1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장애인운동위원회 편, 「장애인주일자료집」(1993), 26.

14) 아라이 다카시, 박천만 역, 장애인 문제와 교회의 책임(서울:도서출판 알뜰기획, 1993), 49.

이다. 이것은 최근에 세계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와 생각이 크게 변했고, 깊어져 왔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계 보건 기구(WHO)는 장애를 “개인의 특질인 신체적, 정신적 부전(身體的, 精神的 不全; impairment)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기능적인 지장의 능력 부전(能力不全; disability) 그리고 능력 부전의 사회적 결과인 불리(不利; handicap)”로 구분하고 있다.¹⁵⁾ 이것은 장애인 개인이 가진 장애 요인(개인적 장애)에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애 요인(사회적 장애)까지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는 장애의 경중에 상관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훌륭하게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사람에게는 신체적 장애가 신체적 특징에 불과하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서 장애의 경중에 상관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런 사람은 신체 장애 이외에도 다른 장애가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사회적 불리(handicap)라고 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불리는 신체 장애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들이 모두 집결된 상태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주체로서 생활을 할 수 없으리만큼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 요인(개인적 장애)과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애 요인(사회적 장애)으로 구성된 장애 형태인 것이다.¹⁶⁾

이와 같은 장애인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장애인이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인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인디언의 한 부족은 간질병 환자를 회귀하고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고 그에게 권세

15) 위의 책, 52.

16) 권도용, “장애우의 개념과 분류”, 「장애우 대학 자료집」(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3), 23.

와 능력을 주었다고 하며, 1차 대전 이전에 독일에서는 상처를 명예의 표상으로 여겼다고 한다.

이와 같이 장애 여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있을 수 없고 장애로 취급되는 문제는 그 시대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좋은 예로서 우리가 잘 아는 걸리버 여행기에서 걸리버가 소인국과 대인국에서 장애인으로 취급받는 것을 보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장애를 사회심리학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메어슨(Meyerson)은 “장애란 한 개인에게 객관적인 사실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판단에 의해 필요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장애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하게 되는 조건이라는 것이다. 장애인으로 취급되고 안 되고는 그 사람 자신의 자격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회적 규범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맹인이 건널목을 지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맹인이라서 그런 것보다는 맹인용 신호기와 같은 그들에게 맞는 사회적 시설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어떤 학자는 신체적 조건이 일반적인 표준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때 이것을 ‘장애’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과 좀 다른 어떤 신체적 특징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대다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기준을 정상(正常)이라고 하고 이러한 표준에서 크게 벗어날수록 이상(異常)으로 보는 관습이 있다.¹⁷⁾

과거에는 장애인의 기준을 주로 신체적 또는 지적 결함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였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오히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가정 생활 및 사회 생활의 불편 정도 등으로 장애인을

17) 여광웅, 앞의 글, 54-55.

판정하고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¹⁸⁾

B. 장애의 범위와 숫자

장애의 개념이 복잡하듯이 장애 분류나 범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장애인의 개념, 즉 장애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와 깊은 관련을 가진다. 앞에서도 살폈듯이 우리 나라에서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의 다섯 가지만 장애로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장애 분류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선진국일수록 장애 출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장애 범위를 높게 잡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보통 그 나라 인구의 10%를 장애인으로 본다. 이것은 세계 보건 기구(WHO)의 통계 기준인데, 보통 이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많은 장애인 단체들은 이 기준을 따라 우리 나라에 약 400만 명 내지 450만 명 정도의 장애인이 있다고 추정한다.

그런데 95년 보건 사회 연구원의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숫자는 95만 5천 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것은 90년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숫자이다.¹⁹⁾ 이같은 통계는 WHO의 통계 기준에 4분의 1도 못 미치는 숫자이다. 어떤 이는 우리 나라는 교통사고나 산업 재해가 많기 때문에 전 인구의 15% 정도를 잡는 것이 옳다고 한다.²⁰⁾ 오스트레일리아는 전 국민의 15%를, 카나다는 전 국민의 23%를 장애인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와 같이 장애 범위를 협소하게 한정하면 장애 출현율이 높게 나올 수가 없다.

우리는 앞서 1975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선언’에서 내린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세계 보건 기구(WHO)에서 내린 장애인 정의에 대해 살폈다. 이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장애가 영구적인가, 고정해

18) 위의 글, 58.

19) 이태곤, “우려를 갖게 하는 장애우 실태조사 결과”, 「함께 걸음」 7월호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5), 21.

20) 손봉호, 약한쪽 편들기, (서울:한국말알선교단, 1991), 55.

있는가, 불치인가 하는 문구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²¹⁾ 이 개념 규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해 준다. 그것은 장애 범위의 확대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신 질환이나 자폐증이나 간질 등도 장애인의 범위에 넣을 수 있다.

장애 범위를 어떻게 잡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단지 “장애인”이라는 호칭이 필요하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미흡하나마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의료나 교육, 복지 제도가 확대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장애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²²⁾

이것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정부 기관은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다.²³⁾ 그것을 기준으로 일반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의 권리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우리 나라에는 100만에서 크게는 450만 정도의 장애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C. 장애 발생 원인

1. 일반적 관점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선천성 장애와 출생시 사고에 의한 장애, 질병에 의한 장애, 사고에 의한 장애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의학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장애 발생 원인도 점점 다양화되고 사회화되고 있다.²⁴⁾ 그리고 오늘날은 유전적 원인으로 생기는

21) 모기 도시히코, 서화자·지혜선 역, 「장애아를 어떻게 키울까」(서울: 도서출판 두레시대, 1994), 27.

22) 앞의 책, 28. 참조.

23) 장애의 범위를 어떻게 잡는가 하는 문제는 정부의 예산과도 관련이 있는데, 주는 쪽과 받는 쪽이 가지는 생각의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애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다.

선천적 장애 발생 비율은 극히 낮고 대부분 환경적인 후천성으로 밝혀지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선천성 장애 발생 원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체로 형성되기 이전에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조건에 의하여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가계(家系)의 순수한 유전은 아니지만 부모의 염색체 이상(배중손상)을 초래하는 돌연변이(mutation)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전 변화의 중요한 요소이며 환경적 요인인 방사선과 공해 물질인 납, 수은중독, 그 밖의 화학적인 물질 등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명체가 생성하고 성장하는 모든 기간에 걸쳐 환경 요인은 영향을 미치며 점차 환경 공해나 약품 등 화학물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방사선 등 핵물질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러한 심각한 환경적 요인이 개선되어 가지 않는 한 장애인의 발생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임신 기간은 장애 유발과 깊은 관련을 있다. 그리고 분만기와 출생 후 3-4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장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²⁵⁾

그런데 우리 나라는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요인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와 산업 재해로 인한 경우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두 가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현저하게 사고율이 높아 소위 교통 사고의 대국 또는 산재 왕국이라고 불리지고 있을 정도이다.²⁶⁾

1985년 인구 보건 연구원(현 보건 사회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의 발생 원인 중 후천적 요인에 의한 장애가 전체의 80% 이상을

24) 이준우, “제가장애인 실태와 교회의 선교·교육사역”, (미간행 신학석사 학위 논문,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1994), 22.

25) 여광용, 앞의 글, 62-63.

26) 이경우, “장애발생의 원인과 문제점”, 「장애우대학자료집」(서울: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1993), 43.

보이고 있다. 이것은 현대 산업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 재해, 환경오염, 전염병, 질병, 교통사고 그리고 전쟁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장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한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 전체의 책임과 문제로 인식되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⁷⁾

2. 신학적 관점

우리는 지금까지 일반적인 관점, 다시 말해 사회학적 관점에서 장애 발생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어떤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우선 주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애인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신학적인 관점에서 장애 발생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장애 발생 원인의 신학적인 접근을 인간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인간 창조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1장 26, 27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장 끝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결함이 있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에 맞는 완전한 것들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완전'이라든가 '불완전'이라는 말을 장애인 문제에 적용시켜 말하는 것은 그다지 적절하지 못하다. 천지 창조에서 말하는 '완전'이란 형태의 무흠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은 피조물의 '목적성'에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완전'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

27) 이준우, 앞의 글, 23.

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게' 보인 상태를 얘기한다.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태초에는 모든 것이 매우 잘 지었다는 사실이다. 모든 것은 조화를 갖추고 부족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 따라서 그때는 우리가 안고 있는 장애인 문제는 없었다고 본다. 이사야서 35장에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 장애인은 없어진다고 말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저희가 장애나 질병으로부터 해방된다고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에서는 그런 약속들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장애인들과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태초에 천지만물을 지으실 때나 재림하신 후의 신천지에서는 질병이나 장애의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질병이나 장애는 그 두 세계의 사이, 즉 이 타락한 세상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²⁸⁾

창세기 2장의 인간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한다. 이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연약함을 가진 존재임을 암시한다. 인간은 흙으로 창조된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흙으로 창조된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심히 좋았던' 자들이었다. 그리고 이런 연약함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목적 속에 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그 죄가 인간 세계에 들어온 후, 인간의 연약함이 장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창조 당시 가지고 있었던 그 인간의 연약함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육적인 변화와 환경의 변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모든 관계가 파괴되었다. 하나님과 살아 있는 교제가 단절되었고, 인간 관계도 붕괴되었다. 심지어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어 버렸다. 해산의 고통과 노동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

28) 아라이 다카시, 앞의 책, 23-25. 참조.

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모든 요소를 압박하게 되었다. 그리고 창조 때에 인간이 가졌던 그 연약함이 이러한 압박에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갖가지 질병과 장애와 괴로움을 낳게 된 것이다.²⁹⁾

3. 예수님의 관점

그러면 개인의 장애 발생이 문제된다. 개인에게 일어나는 장애 발생도 각 개인의 죄의 결과라고 보아야 옳은가? 물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소급해 보면 근본적으로 인간 창조와 인간의 타락에 닿게 된다. 그러나 성경은 그에 대해 깊이 있는 답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인간 타락 이후 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장애 원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올바른 장애인관을 가지는 데에 바탕이 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 예수님은 어떤 관점으로 보셨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우리는 흔히 장애를 하나님의 형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태도가 그랬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 된 사람을 보고는 이렇게 질문한다.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제자들의 이 질문 속에는 당시 유대교의 질병에 대한 통속적 관념이 잘 표현되어 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나병³⁰⁾, 시각 장애, 청각 장애 등 불치의 병이나 장애가 죄

29) 위의 책, 34.을 참조. 후크마의 『개혁주의 인간론』(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0)에서도 많은 도움을 얻었다.

30) 나병을 일명 한센씨병이라고 한다. 1873년 노르웨이의 “Gerhard Armauer Hansen”에 의하여 병원균으로서의 나병이 발견되었고, 감염되는 것이 확실해짐에 따라 Hansen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명칭이다. 형태는 결핵균과 동일하고 균에 의해 전염되는 전염병으로 증명되었으며, 90%는 인체 내에서 자연 면역이 되고 7-8%가 발병 도중 자연 치유가 되며, 나머지 1-2%만이 나병환자가 된다. 한철용, 나환자에 대한 선교전략,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아세아연합대학대학원, 1986), 1. 이렇게 나병을 한센씨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각주 11)에서도 살펴듯이,

의 징벌로 인한 것이거나(레16:15,16; 신28:61; 대하 21:15; 전5:17 등)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이해하였다(민14:18; 시79:8; 사65:6,7). 예수님의 제자들도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통속적인 관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구약도 모든 질병을 죄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욥 2:1-10)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셨다(눅13:1-5). 또 범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에스겔 18:20도 제자들의 ‘부모 혹은 본인의 죄책’ 중 양자 택일을 강요하는 논리의 부당성을 드러내 준다. 사실이 세상을 사는 동안 신자든 불신자든 햇빛과 비의 혜택을 똑같이 누리듯이 뜻밖의 질병이나 재난 역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신자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연단 시키시거나 자고(自高)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질병을 주시기도 하신다(고후12:7; 벨전4:12,13). 따라서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은 핵심을 찌르지 못한 우둔한 질문이었다.

제자들이 추측한 소경된 자의 소경된 두 가지 이유(그 사람 혹은 그 부모의 죄)를 모두 거부하신 예수님께서서는 그 진정한 원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을 제시하신다(요11:4).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예수께서 모든 질병의 원인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 지적하신 것처럼³¹⁾ 죄의 결과인 질병도 있다.³²⁾ 하지만 이 경우에는 예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질병이다.³³⁾

그 대상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의식을 교정하기 위한 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말은 생각의 반영이고 말이 생각(의식)을 규정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31)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한복음 5:14).

32)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자 할 때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29,30 절).

마가복음 2장³⁴)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 지붕에서 내려지는 것을 보시고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나온다. 질병을 고치시기 이전에 이같은 선언을 하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보고 장애 원인이 죄의 결과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중풍병자가 무슨 몹쓸 병을 지었기 때문에 중풍이 든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죄의 용서를 선언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문의 주안점은 중풍병자와 그의 어떤 구체적인 죄 사이에 상관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다.³⁵ 비록, 위에서 언급한 대로, 죄와 질병의 연관성이 성경에 암시되어 있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성경의 주된 관심은 죄와 질병의 상관성 여부보다는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는 데 있다고 보아야 옳다. 다시 말해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10절).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 지붕에서 내려질 때, 그것을 통해 자신에게 죄사함과 치유에 대한 권세가 있다는 진리를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두고 장애 발생 원인이 죄의 결과인 것처럼 속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예수님께서도 장애와 죄의 상관 관계를 아주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귀한 수단이기도 하다는 적극적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부정적 시각을 일시에 무너뜨리고 있다.³⁶ “장애는 곧 죄의 결과”라는 논리는 예수님께 오면

33) 그랜드종합주석 제13권(서울:성서교재간행사, 1994), 768.

34) 이 사건은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온다.

35) 이준수, 내 손을 붙드시는 주님, (서울:여수론, 1993), 20-21.

36) 이계윤, “성경의 장애인,” 『제3기 재가장애인 선교복지요원양성훈련 교재』, (서울:한국밀알선교단, 1993), 5.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³⁷)

II. 장애인 선교에 대한 이해

A. 선교의 개념

선교 또는 선교학의 개념은 정의를 내리는 사람의 신학적인 배경에 따라서 달라진다. 선교란 말 자체가 오늘날 꽤 애매한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이해도 다양각색으로 되었다.³⁸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카이퍼(R. B. Kuiper) 박사는 전도와 선교는 결국 같은 뜻이라고 했다. 다만 전도는 같은 문화권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 하는 것이 선교라고 한다.³⁹ 이것은 전통적으로 교회가 이해한 선교 개념이다. 2차 대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교회는 해외 선교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전도에 강한 열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차 대전 후 선교 신학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⁴⁰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서구 교회는 분열로 말미암아 선교지에 혼란을 주게 되었고, 이것은 선교에 큰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 연합 운동이 선교에서 일어났다. 이런 와중에 서구 교회 지도자들은 전통적 선교 개념을 포기하고 사회 구원의 선교 신학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전도가 현존, 인간화, 해방화로 대치되었다. 이러한 급진적인 사상은 반대로 복음주의 교회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강조하여 거기에 대한 전략 개발에 열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복음주의 내에서도 폭넓은 선교 개념을 말하는 자들이 있다. 선교를 타문화권 전도로만 국한하지 않고 전도와 사회 봉사를 선교로

37) 이준우, 앞의 글, 34.

38) 백수복, 한국교회 특수선교의 이론과 실제(서울:성광문화사, 1993), 34.

39) 위의 책, 7.

40) 전호진, 선교학, (서울: 개혁신행회, 1985), 17.

간주한다. 영국의 스톡트(John Stott)는 에큐메니칼 선교의 양극화를 절충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스톡트는 교회는 봉사의 단체일 뿐만 아니라 예배의 단체이며 예배와 봉사가 서로 소속적이긴 하지만 혼동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⁴¹⁾고 하면서 에큐메니칼 선교를 부정한다. 동시에 그는 복음 전도와 사회 활동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선교관을 주장한다.

케인(Herbert Kane)도 선교를 영혼 구원과 사회 봉사로 해석한다. 그는 “복음주의 선교를 전도와 동일시하여 영혼 구원은 잘 하지만,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데는 느리다.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사회 봉사 활동은 잘 하지만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 양자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에 의하면 성경과 선교 역사에서 살펴볼 때 선교는 전도뿐만 아니라 교회 개척과 의료 봉사, 교육 사업 등 모든 봉사 활동도 선교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전도는 “복음의 구속적 선포”라는 활동이며, 선교는 전도와 사회 봉사가 다 포함되는 것이다.⁴²⁾

그러면 올바르게 균형 잡힌 선교 개념은 무엇인가? 그것은 전인적인 선교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선교는 인간 생활 전역의 복음화이다. 비록 선교의 주 목적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이긴 하지만, 교회는 선교 사업의 대상자들이 영적 필요뿐만 아니고 육체적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인간은 영-육 통일체적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여 “영혼 구원”과 같은 표현들은 지양해야 하며 선교에 있어서 포괄적인 접근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⁴³⁾

B. 장애인 선교의 명칭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장애인 선교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교

41) 존 스톡트, 김명혁 역, 현대기독교선교, (서울:성광문화사, 1981), 35-36.

42) 전호진, 앞의 책, 22.

43) 안토니 A. 후크마, 류호준 역,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369.

(Mission)로 보느냐 목회나 사역(Minister)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다.⁴⁴⁾

전호진은 “선교학”에서 선교를 타문화권에서 복음 전도를 위한 교회의 복음 전도를 위한 교회의 모든 활동, 즉 교육 사업, 의료 사업, 개발 사업, 구제 사업 등 모든 교회의 봉사 활동을 선교로 간주하고 있다.⁴⁵⁾ 물론 국내에서 행하는 전도 활동과 교회의 봉사 활동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 편의상 타문화권에서 행하는 전도와 봉사 활동에 국한하고자 한다고 했지만, 그가 근본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타문화권 선교인 것이다. 또한 “토착화”(Contextualization)를 저술한 헤셀그레이브(Daid J. Hesslgrave)와 로맹(Edward Rommen)의 주장으로 보아도 선교는 타문화권 선교임을 어림할 수 있다. “다양한 선교관, 문화, 심리 상태의 사람들과 관련되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작용하도록 만드는 일에 봉사하는 것이 선교의 역할이다”⁴⁶⁾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선교를 타문화권 선교로만 국한시키려는 경향은 선교를 해외선교(Foreign Mission)만으로 국한시키려는 경향이 옳았다. 그래서 F. M.-1, F. M.-2, F. M.-3의 개념이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⁴⁷⁾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장애인 선교는 특수한 선교(Special Mission)라기보다는 특수한 목회나 사역(Special Minister)이라고 하여야 한다는 설득력이 있을 법하다.

이처럼 장애인 선교는 타문화권선교가 아니기에 특수 사역(Special Minister)의 한 분야라고 보아야 타당하겠다. 그러나 장애인 선교는 나름

44) Mission을 타문화권 선교로만 정의하면, 장애인 선교는 타문화권 선교가 아니고 국내의 특수한 선교이기에 Mission이라기보다는 특수 목회나 사역(Minister)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주장함. 백수복, 앞의 책, 206.

45) 전호진, 앞의 책, 23.

46) Daid J. Hesslgrave & Edward Rommen, Contextualization,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9), 10.을 백수복, 206.에서 재인용.

47) F. M.은 Foreign Mission의 약칭이며 F. M.-1은 해외 동종 선교-디아스포라선교, F. M.-2는 유사 문화권과 타언어권 해외 선교, F. M.-3은 타문화권과 타언어권의 해외선교를 지칭함. 백수복, 앞의 책, 206.

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이다. 예를 들면 농아인은 일반 언어와 완전히 다른 수화를 언어를 가지고 있고, 이 수화는 일반 언어 체계와 완전히 다를 뿐 아니라 수화를 사용하고 있는 농아인은 사고방식이나 삶의 유형이 일반인과 상당히 다른 차이점이 있다. 맹인도 점자라는 특수한 언어 표현방식을 지니고 있고, 촉각과 청각을 통해서만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기에 독특한 사고 방식과 삶의 유형을 지니고 있다고 말해도 무리가 없다. 정신지체인들은 이러한 예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⁴⁸⁾ 따라서 장애인 선교의 대상자 대부분이 특수한 상황에 처한 점을 감안할 때에 이들의 생존 환경이 이질 문화권임을 충분히 단정할 수 있다.⁴⁹⁾ 장애인 선교를

48) 이계윤, 앞의 글, 10.

49) 사실 장애인들이 쓰고 있는 수화나 점자들을 들어 장애인들이 이질 문화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개운치 않은 데가 있음을 인정한다 (엄밀히 따지면, 모든 인간은 각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간다. 다른 환경, 다른 생각... 그러므로 장애인이 이질 문화권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단지 그것은 장애인 선교가 최근 여러 학자들이 말하는 선교 개념에 부합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선교(Mission)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리고 장애인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겠다(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해외 선교가 선호되고 더욱 고급스러운 사역처럼 여겨지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 어디나 선교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고 하셨다. 바울은 지금의 스페인을 땅끝으로 생각하고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열망했다(롬15:23). 오늘날 스페인을 땅끝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를, 어떤 사람은 인디야를 땅끝으로 해석한다. 저마다 다르다. 그러면 땅끝은 어디인가? 조금은 극단적이고 비약된 해석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 우리의 관심이 닿지 않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땅끝은 아주 멀리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가까이에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나 인디아, 중국이나 북한이 땅끝이 될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 이웃의 그늘진 곳도 땅끝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이질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선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

‘Mission’으로 보는 것에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다고 본다.⁵⁰⁾

C. 장애인 선교의 성경적 배경

뉴비긴(Newbegin) 감독은 “선교의 신학은 성서 연구에 그 생명력이 있다”⁵¹⁾고 했다. 이것은 장애인 선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 선교를 말할 때, 장애인 선교의 성경적 배경과 근거를 살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1. 구약에 나타난 장애인 선교

구약에는 ‘약자 보호법’이 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인도주의에 근거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구약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 되었던 상태에서 구원의 하나님,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징벌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구약 전체를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약자의 보호자’로서

는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최근 교회 쇠퇴 등과 같은 한국 교회의 여건들을 고려할 때 국내가 더 시급한 선교지로 강조되어야 할 때인 것처럼 보인다(이런 점에서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인다). 국내(내지) 선교와 해외(외지) 선교는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지해야 할 것이다.

50) 장애인 선교의 명칭에 대해서는 백수복, 앞의 책에 나오는 특수선교의 개념과 명칭을 참고하여 장애인 선교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51) G.Andreon, The Theology of Christian Mission, (London, S.C.N Press, 1962), 306.을 백수복, 한국교회특수선교의 이론과 실제, (서울:성광문화사, 1993), 29.에서 재인용.

하나님의 모습이다.⁵²⁾ 신명기 10장 18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잘 밝혀주고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여기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고아, 과부, 나그네⁵³⁾가 등장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들을 신원(伸冤)하시고(즉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한다. 시편에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부르고 있다(시68:5). 이밖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힘 없고 약한 자, 고난 당하는 자들의 외침을 들어 주신다는 것은 구약에 여러 번 언급되어 있다.⁵⁴⁾ 또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빈궁한 자들의 보호성이 되신다는 말씀도 있다.⁵⁵⁾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시며 이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떤 윤리학자는 구약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약자에 대한 끈질긴 편애를 가지고 계셨다”고 말하기도 한다.⁵⁶⁾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사회

52) 박준서, “구약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구제,” 『빛과 소금』 12월호 (서울: 두란노서원, 1985), 74-75.

53) 구약에서 고아는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버지가 없는 아이’(fatherless)를 말한다. 어머니가 생존하여도 어머니는 과부로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존재였다. 과부는 상속권이 없었다. 그러므로 남편이 죽은 후의 처지는 매우 곤궁할 수밖에 없었다. 장성한 자녀에게 의지하여 살아가야 할 처지에 놓인 자가 바로 과부였다. 그리고 객(客) 또는 나그네는 자기가 본래 태어난 땅과 가문을 떠나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약한 존재들이었다. 구약 시대에 고아, 과부, 나그네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었고, 구약에서 이들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대명사처럼 등장하고 있다. 박준서, 앞의 글, 75.

54) 시편 9:12; 10:12; 34:6; 이사야 49:13; 출애굽기 22:25-27. 특히 출애굽과 관련된하여, 출애굽기 2:24; 3:7,9; 신명기 26:7 등

55)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保障)이시며 환란당한 자의 보장이시라”(이사야 25:4).

56) 손봉호, 앞의 책, 2.

적으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보호해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을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미워하고 학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인 것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도 사랑해야 한다. 한 마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도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신앙적인 논리이다.⁵⁷⁾

이런 배경에서 구약의 ‘약자 보호법’이 마련이 되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현대에 적용하면 어떤 부류가 속하는 것일까? 이상진은 성경에 나타난 “고아와 과부”의 의미를 신분과 형편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현대의 장애인과 노인에게 적용하고 있다.⁵⁸⁾ 손봉호 역시 그의 책 『고통받는 인간』의 머리말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을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⁵⁹⁾ 물론 현대에서 약자에 속하는 부류는 이뿐 아니다.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될수록 그것은 더욱 세분화될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이 현대의 약자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된 기독교인은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약자들의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외침에 우리들의 귀를 열고 우리들의 손을 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도리요 책임인 것이다.⁶⁰⁾ 그러면 약자 보호법의 내용을 정형석의 글과 박준서의 글을 참고로 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구제를 위한 십일조

57) 박준서, 앞의 글, 75-76. 참조.

58) 이상진, “고아와 과부에 관한 의미의 현대적 적용과 교회의 사명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고신대학 신학대학원, 1990), 10.

59) 손봉호, 고통받는 인간,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60) 박준서, 앞의 글, 78.

신명기 14:28-29과 26:12-15에 보면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십일조 가운데 3년마다 한번씩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특별한 십일조, 즉 구제 십일조를 드렸다. 하나님께 바쳐진 구제 십일조는 저축하여 두었다가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사용했다.

2) 추수법

이스라엘에는 다른 사회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추수법이 있었다(레 19:9-10, 신23:22, 24:19-21). 곡물을 벨 때에는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않고 떨어진 것을 줍지 않았다. 또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배려였다. 룻기 2:23을 보면 과부 룻이 흉년 때에 이삭을 주어 시모 나오미와 함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3) 안식년과 회년

안식년은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년째에는 땅을 쉬게하는 제도이다. 이때 저절로 생산되는 곡물과 포도 등의 소출은 땅 주인과 종들과 나그네와 심지어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이었다. 또 안식년이 되면 파거에 꾸어 준 모든 빚을 면제해 주고 히브리 종들도 자유를 얻는다. 회년(안식년이 일곱번 지난 후에 오는 해)이 되면 종이 해방되고, 판 땅도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등 모든 것이 원상 회복되는 해였다(출 23:10-11, 레25:1-7, 25:18-22, 25:23-33).

4) 종교적 절기(신16장, 예9:20-22)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지키는 유월절(무교절), 맥추감사절인 칠칠절(초실절), 추수감사절인 장막절(초막절, 수장절) 등의 3대 절기는 빈부나 사회적인 지위에 관

계없이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었다(즉 불쌍한 사람들인 종과 객과 과부를 돌보면서 접대하는 절기이다).

5) 가난한 자의 제물과 예물

구약성경에는 성전예배와 제물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 양에 미치지 못하면 집 비둘기들이나, 산비둘기 새끼들로 드릴 수 있도록 배려했다(레5:7, 5:11, 12:8, 14:21, 27:8).

6) 권력을 가진 자의 책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책임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힘있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지만, 힘이 없는 자는 스스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자들은 약한 자를 보호해야 한다. 재판에 있어서도 약한 자라고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출23:6, 신24:17, 27:19).

7)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여러 가지 법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여러가지 법은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과 꾸어주는 것과 품삯을 주는데 필요한 원칙이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구제해야 하며 돈이나 물건을 꾸어주는 경우에 이자나 이식을 받는 것이 금지되었고 담보물을 받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규정이 있었으며 일꾼의 품삯은 반드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출 22:25-27, 레19:13, 25:35-38, 신15:7-11, 23:19-20, 24:10-15).

2. 신약에 나타난 장애인 선교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이 땅 위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들이 많았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예수님의 선교는 장애인 선교였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⁶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슬

한 말씀 가운데에는 장애인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난 사건의 대다수가 장애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소외 받은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다(막 6:34). 멸시 받거나 소외된 무리를 예수님은 만나 주셨고, 구원의 복음을 전했고, 병든 자는 고쳐주셨고, 멸시 천대 받는 자는 높여 주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누가복음 4:18-19과 마태복음 11:5 같은 구절에서 요약적으로 볼 수 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자라난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셨던 적이 있다. 다음과 같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눅4:18-19). 그리고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 갓을 때,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하고 묻게 했다.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확실하게 “오실 자, 메시아”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사야 35장을 인용하신다. “너희가 가서 소경이 보며 앓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마5:4-5, 눅7:22).

물론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가난한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⁶²⁾ 가난한 자든지 부자든지 차별이 없었

다.⁶³⁾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앞서 우리가 살폈듯이,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리는 은혜로운 수단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가난하며 병든 자들을 민망히 여기시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곧 자기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다.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의 ‘큰 심판 비유’⁶⁴⁾에 잘 나타나 있다.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25:40).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은 구원받은 자의 사랑의 실천을 요구한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실천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22:37-40)는 말씀으로 구약에서 나타나는 약자에 대한 율법을 재조명한 것이다.⁶⁵⁾ 예수의 삶 속에서 소외 받은 자들이 절대로 선교에서 외면받는 일이 없어야 함을 알게 된다.

이 같은 예수님의 장애인 선교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다.

인 목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 자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물론 맞다. 예수님의 물질적 자선이나 치유사역은 그의 신성과 구원의 복음을 증시하는 은혜로운 수단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너무 영적인 해석에 치우쳐 그들이 당하는 실제적인 고통을 도외시한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사회적·정치적 관점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보수주의자들처럼 장애인을 단지 “영적 장애인” 정도로만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영이나 육 어느 한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인(영·육 통일체)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63) 이상진, 앞의 글, 16.

64)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도 한다.

65) 이상진, 앞의 글, 17.

61) 이계윤, 예수와 장애인, (서울:한국밀알선교단 출판부, 1994), 7.

62)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가난한 자는 실제적 의미에서 가난한 자이며,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왕국을 선포하려 오셨고 예수님의 선교의 대상도 가난한 자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은 그들의 고난을 끝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는 달리 보수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궁극적

첫째,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증거로 장애인 선교를 하셨다. 앞에서 살펴듯이 누가복음 4:16-18에 보면 장애인 선교가 메시아로서 해야 될 일임을 알 수 있다(눅7:22, 마11:4-5).

둘째, 장애인을 깊이 사랑하심으로 장애인 선교를 하셨다. 마태복음 20:29-34에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예리고에서 맹인 두 사람을 만나셔서 그들의 눈을 고치실 때, 민망히 여기서 고치셨으며 마가복음 7:31-37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귀먹고 어눌한 한 농아인을 만나셔서 그를 고치실 때에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고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장애인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의 장애를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의미이다.

셋째, 전인 구원적인 장애인 선교를 하셨다. 마태복음 9:1-8에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들것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지체 장애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의 장애를 고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9:1-41에는 선천적인 시각 장애인을 고치시고 자신을 증거하셨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한편으로는 전도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치료하시는 전인 구원적인 사역을 하셨다.

넷째, 부정적인 장애인관을 긍정적인 장애인관으로 바꾸셨다. 우리는 그것을 요한복음 9:2-3에서 확연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8:1-4에서 예수님은 한 나병환자를 고치시는데, 당시 사람들은 나병은 죄로 결과로 생긴 병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멀해서 죄로 인한 부정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병환자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였으며, 만지지도 못하게끔 율법으로 정해놓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만지시며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다. 이것은 장애를 보는 눈이 일반인과 달라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섯째, 장애인 선교를 통하여 일반인 선교를 이루셨다. 마태복음 4:24-25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자 그의 소문이 퍼져 많은 무리가 좇았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장애인을 고치시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지만, 고침받은 장애인은 예수의 소문을 온땅에 전파했다.

이와 같이 한 장애인이 예수를 만나 변화된다면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게 된다. 그래서 장애인 선교는 단순히 장애인에게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변화된 삶과 사랑의 장애인 선교 현장, 장애인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전을 주는 생산적인 선교이다.⁶⁶⁾

D. 장애인 선교의 특징

우리는 앞서 장애인 선교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선교 개념과 장애인 선교의 명칭 등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선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겠다. 장애인 선교의 특징에는 장애인 선교의 개념까지 함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1. 특수 선교

선교의 대상이 맹인, 약시, 언어 장애인, 청각 장애인, 지체 장애인, 정신 장애인, 정서 장애인 등으로 특수하며 접근방법도 일반선교와 다르다. 또한 맹인은 문자가 다르고 농아인은 언어가 다르다. 정신지체인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장애인의 경우 문화도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66) 정형식, “장애인 선교 신학”, 「제3기 재가장애인 선교복지요원양성훈련」(서울:한국밀알선교단, 1993), 116-118. 참조.

2. 복지(봉사) 선교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할 때 복지와 함께 또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복음을 전한다. 또한 장애인을 접촉하기 위해서도 프로그램이 있어야 효과적이다. 따라서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3. 다양성

장애유형이나 접근방법에 따라 선교전략이 다양하며 선교 기관도 여러 종류가 있다. 예를 들면 맹인, 농아인, 지체 장애인, 정신 지체인 등의 단일 선교 기관이 있으며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 선교 기관이 있다. 그리고 선교 기관의 형태에 따라 교회, 수용 시설형, 이용 시설형, 음악 선교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4. 종합 선교

장애인들은 의료, 직업, 교육, 보호, 신앙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목사, 의사, 특수 교사, 사회 사업가, 간호사, 물리 치료사, 보육사 등의 전문 직업인들과 자원 봉사자, 후원자 등의 종합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선교 대상도 장애인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한다.⁶⁷⁾

Ⅲ. 교회와 장애인 선교

A. 한국 교회의 장애인 선교의 역사

원래 우리 나라의 장애인 선교는 19세기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 선교를 시작하면서부터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 나라에서 의료 활동과 교육활동을 통하여

선교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와 장애인들은 불가분의 관계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선교사들은 광혜원, 정동제일병원, 평양기흥병원, 제증병원 등 여러 병원을 설립하여 의료 선교 활동을 하였는데, 이러한 의료활동을 통하여 장애인 선교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은 평양에서 부인병원과 한국 최초의 간호학교를 설립한 감리교 선교사인 로제타 셔우드 홀(R. S. Hall) 여사가 1894년 처음으로 맹인 소녀에게 점자법과 재활 교육을 실시한 것이 근대 한국의 특수 교육의 효시이자 장애인 선교의 효시가 되었다. 그는 평양에서 1894년 맹인의 점자법을 한글과 한자의 맞춤법에 맞춰 '뉴욕식 점자'로 초등 독본과 기도문 및 십계명 일부를 편찬하여 가르쳤다. 처절토록 비참했던 장애인들을 깨우치고 장애 요인을 극복하도록 모페트(S. A. Moffet) 부인과 한국 교회가 이사회로 결성되어 그들을 교화하는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1897년에는 「불구아동을 위한 집」이 서울에 세워지기도 했다. 페리 양이 9명의 선교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1901년에는 23명의 장애 아동이 수용돼 있었는데, 그 가운데 남아(男兒)가 19명이었다. 여기서는 한글과 학문, 창가, 산술, 지리, 재봉 등 기초 지식을 가르쳤다.⁶⁸⁾ 이후에도 선교사들에 의해 의료 활동과 교육 및 재활 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 선교가 계속되었는데, 1897년 각국의 구라회 후원으로 부산 나병원 개설, 1903년 평양여자맹인학교, 1904년 평양남자맹인학교(이 두 학교가 1914년 평양맹인학교로 병합), 1908년 포사이드 선교사에 의해 여수 애양원 교회 설립, 1909년 선교사들에 의해 평양농아학교 설립, 1913년 나환자를 위한 애락원 설립 등 많은 사업이 전개되었다.⁶⁹⁾

67) 위의 글, 128-129.

68) 송기태, "한국교회와 장애자 선교의 현주소," 「장애인」(서울:두란노서원, 1991), 15-16.

69) 김영길, 앞의 글, 89.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장애인 선교를 일반인 선교보다 소홀하게 다루지 아니하였으며, 의료 교육 재활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장애인들에게 선교를 하였고, 정부의 장애인 복지 사업을 이끌어 주었다.⁷⁰⁾ 이처럼 한국 교회는 여명기로부터 장애인과의 뿌리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교회의 장애인 선교의 좋은 전통은 엄밀히 말하면 외국 선교사들에 의한 것이지 한국의 성도들에 의해 우리 교회가 한 것은 아니었으며,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한국 교회 안에서 개설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조선시대를 마음껏 주무른 유교 정신의 마지막 노폐물인 신분 차별 의식은 장애인들을 멸시와 천대의 대상으로 보기에 충분한 시각을 제공하기에 남음이 있었고, 60년대 이후 성장 일변도의 경제 정책은 능력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는 사회로 만들어 놓았다.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가난을 극복하고 잘 사는 데 여념이 없었지 그 와중에 생기는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돌리지 못하였다. 이런 의식은 교회에도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왔고, 교회 안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게 되었다. 교회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부흥하고 성장하는가에 있었다. 교인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의식은 일반 사회인과 별 차이가 없었다. 단지 교회 입장에서 장애인들이란 동정을 받아야 할 불쌍한 처지에 있는 자들로서 자선적 시혜적 차원에서 구제 대상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교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은 일반 사회인과 거의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속에서 장애인 선교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무관심은 70년대말까지 계속되었다.⁷¹⁾ 그러나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며, 1988년 장애인 올림픽을 계

기로 일반 사회의 관심과 함께 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는 듯했으나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관심도 다시 수그러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장애인 선교는 아직도 시작 단계라고 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선교 초기에는 교회가 장애인들의 문제에 대해 국가를 이끌어 갔지만, 지금은 오히려 국가의 복지 정책이나 재활 체계에서 교회가 훨씬 뒤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⁷²⁾ 여기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적어도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면서 역사를 바라보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다.

B. 교회와 선교 단체의 관계

장애인 선교를 생각함에 있어, 교회와 선교 단체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와 선교 단체와의 관계에서 문제 되는 것은 장애인 선교의 주체를 교회로 두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 밖의 자발적으로 구성된 선교회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와 1988년 장애인 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사회 전반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선교 단체가 급속히 늘어났다. 어떤 이의 표현을 빌리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유익을 주기도 했지만, 문제점도 많이 안겨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현상을 바라보며 선교 단체를 그리 탐탁치 않게 여기기도 한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의 바탕이 되는 것은, 간혹 보이는 선교회의 윤리적 부패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이런 시각은 수도원을 바라보는 칼빈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하겠는데, 칼빈은 종교 개혁 당시의 수도원의 부패와 교리적 오류, 잘못된 금욕주의에 신랄하게 비판하였다.⁷³⁾

이런 현실 속에서도 선교회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

70) 위의 글, 89.

71) 70년대말에 이르러 몇몇 뜻있는 사람들에 의해 장애인선교 단체가 창립되었다. 76년에 「베테스다 선교회」가 창립되었고, 뒤를 이어 79년 10월에 「한국밀알선교단」이 창립되었다.

72) 김영길, 앞의 글, 89.

73) 칼빈, 기독교강요, 제4권 13장 14절(서울:성문, 1990), 523-524

는데, 이런 사람들은 바르넥(Warneck)의 다음과 같은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바르넥은 19세기에 교회 밖의 선교회가 등장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기성교회는) 선교에 냉담하거나 적대적이었으며, 오히려 선교를 사양했기 때문에 선교 사업을 맡을 독립된 기구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개신교 세계에서도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유스런 협회가 탄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것은 섭리의 조건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교회도 인정한다. 그 이유는 선교회 등장으로 교회가 선교를 적대시하는 자세에서 호의적 태도로 바꾸었기 때문이다.”⁷⁴⁾

그리고 보어(Harry Boer)는, 교회 기구와 조직이 선교를 외면했기 때문에 성령은 교회의 어떤 부분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교회가 선교의 대사명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선교의 열의를 가진 ‘선교의 친구들’과 ‘선교에 열심인 자들’이 선교회를 조직하였으며, 성경적으로 말하면 선교회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선교회는 축복된 비정상이라고 했다.⁷⁵⁾

보어가 지적한 것과 같이 장애인 선교회는 “축복된 비정상”이다. 따라서 선교회는 영적 실체가 아니라 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실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비록 성경적 타당성이 없다 할지라도 그 점을 고려하여 피차 협조하는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장애인 선교회나 단체들이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으며, 더욱 적극적으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런 장애인 선교회나 단체들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제도적 교회가 하나님의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되지 못하며 교회가 교회로서 모든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가 보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장 큰 장애물은 제도적 교회이다.”⁷⁶⁾ 이때껏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미처 소외 받은 자들, 특히 장애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못하고 지나왔다. 자유주의자들이 소외받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해올 때, 보수적인 복음주의 노선에 있다고 자처하는 한국 교회는 고통 당하는 이웃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도 부족했고 관심도 별로 없었다.⁷⁷⁾ 그것은 교리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외 받은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삶 속에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에 의해 장애인 선교회가 하나 둘 생겨나게 되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저 열정만으로 주님의 일에 몰두하여 왔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교회가 미처 관심을 가지지 못한 부분에 선교회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일해왔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애인 선교 단체를 무시하거나 백안시하는 태도는 버려야 할 것이다. 오히려 교회는 왜 이런 선교회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자성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선교회에 대해서 고압적인 자세로 그저 후원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선교회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 주어야 할 것이다. 선교회는 그 기능상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⁷⁸⁾ 그러므로 교회

76) 전호진, 앞의 책, 103.

77) 양낙홍, “민중신학분석”, 『개혁신학과 교회』 제4호(부산:고려신학대학원, 1994), 153-154. 참조.

78)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교회가 탈교회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장애인 선교회 중에는 재정적인 기반이 열악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끔 재정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역을 과장되게 포장하거나 후원 내역을 은폐하는 선교회도 있는 것을 본다. 다른 선교회(주로 해외 선교 기관을 말한다)와 마찬가지로 기관 창설자와 지도자 중

74) Warneck, “The Two Structure of God’s Redemptive Mission,” 8.을 전호진, 앞의 책, 99에서 재인용.

75) 전호진, 앞의 책, 99.

와 선교회는 상호 보완의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선교 단체는 현장 사역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고 있다. 현장에서 얻은 것이기에 그것들은 실제적이다. 그러기에 교회는 이런 면에서 선교 단체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교회는 강력한 조직과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다. 이것들은 선교 단체에는 부족한 것들로서 교회는 선교 단체의 이런 부족을 채워나갈 수 있다. 교회는 막대한 시설 자원을 장애인 선교 단체에 지원할 수도 있고 대단한 재정 자원으로 선교 단체를 후원하며 그들의 일에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다.

C. 장애인 교회와 지역 교회의 관계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들이 적응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장애인들은 일반 교회(비장애인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할 때, 부득불 장애인 교회를 필요로 한다. 1992년 기준으로 볼 때 전국에는 130개의 장애인 교회가 있다. 농아인 교회가 80개(농아부 포함)로 가장 많고 지체장애인교회는 35개, 맹인교회는 15개(맹아부 2개 포함)가 있다. 정신 지체인 교회는 장애 특성상 독립된 교회는 없고 일반 교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부서만 12개 있을 뿐이다. 장애인의 특성상 모든 장애인이 함께 모이는 교회는 없다.⁷⁹⁾

심이 되어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목적에 전념하다보면, 균형을 상실하거나 사물을 포괄적으로 보지 못할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지방보다 대도시 특히 서울권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시골이나 소도시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최소한의 서비스와 정보조차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선교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열정 하나만을 가지고(어디에 근거한 열정인지는 모르지만) 선교회를 시작하는 경우이다. 선교나 장애인에 대한 전문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역의 내용이 감상적인 차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장애인 선교회에 대한 긍정적 인상보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경우가 더 많다.

79) 이동혁, “장애인 복음화에 대한 교회의 역할”, (미간행 졸업논문, 합동신학교, 1994), 22.

농아인 교회가 많은 것은 농아인들이 일반 교회를 다니지 않고 농아인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농아인의 특성상 언어가 다르므로 일반인 교회에 참석하기가 어렵고 통역 예배가 있다 하더라도 전달이 어려울 뿐 아니라 교인 사이에 자연스러운 교제가 불가능하므로 농아인들은 농아인 교회에 출석한다.

지체 장애인들은 장애 인구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지만, 생각보다 교회가 적은 것은 일반인과 적응하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35개 중 순수한 장애인 교회는 적고, 대부분 장애인 시설 교회 또는 장애인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교회이다. 사역지는 주로 지체 장애인이지만 다른 교회에 비하여 일반인 목회자도 많이 있다. 주로 군소 교단 소속 교회가 많은 편이다.⁸⁰⁾

장애인 교회는 장애인들이 교회에 접근하기가 쉽고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등 상호 친목이 좋아서 응집력이 있고, 장애 특성에 맞는 자체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장점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도 가지고 있다.

첫째, 일반 사회나 교회로부터 고립된 집단이 되어 언제나 소외된 상태에 있으므로 사회 통합의 저해가 된다.

둘째, 일반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므로 교회 성장에 한계가 있고, 장애인들이 대부분 가난하므로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워 계속해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함으로 교회의 안정감이 없고 자립심이 약화되며 의타심이 생긴다.

셋째, 자원 봉사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넷째, 자녀들의 교육에 바람하지 못하다. 장애인 자녀들은 장애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애인 교회에 나가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

80) 위의 글, 22.

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출석할 경우에도 교사의 부족과 장애의 한계로 인하여 효과적인 교육이 어렵다.⁸¹⁾

이런 점을 보아서도 장애인들만이 모이는 교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것이 차선책은 될 수 있어도 최선책은 될 수 없다. 최선책은 아무래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별 없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일 게다. 최근 사회 복지의 방향은 분리에서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다. 분리는 자칫 고립을 만들 수도 있고, 장애로 발생하는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 함께 할 때, 서로의 형편을 더욱 잘 알 수 있다. 교회 안에서도 이 통합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장애인 교회는 장애인들만이 모이는 교회에 안주하지 말고 가능한 일반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역 교회도 이런 점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회가 장애인에게 적응하지 않는다면 결코 장애인은 사회로 통합될 수 없다”는 말처럼 교회가 장애인에 대해 적응하지 않는다면 결코 장애인은 교회로 통합될 수 없는 것이다. 교회는 넓은 공간 중에서 한 부분을 떼어 장애인에게 주는 것으로 자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회 여건으로 완전 통합이 어렵다면 부분 통합이나 장애인 교회나 선교 단체와의 연합을 조심스럽게 모색해나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듯이 누구나 지닌 모습, ‘있는 그대로’ 그 모자람을 서로의 사랑으로 채워가며 어려움을 서로 함께 나눠 지려고 하는 교회, 우리 모습-다양한 모습 그대로 함께 모여 조화롭고도 바르며 아름답고도 자연스럽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장애인을 사랑하고 선교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다.⁸²⁾

81) 위의 글, 23.

82) 이준우, 앞의 글, 46-47.

D. 장애인 선교를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1. 인식 개선

몇 번이나 언급한 사실이지만, 장애인 선교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버리고 바른 인식을 가지는 일이다.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교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교육 활동을 하여야 한다. 교회가 외적으로 홍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먼저 교회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교육되어야 한다. 장애인을 단지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분위기가 기독교 내에 널리 번져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먼저 ‘장애인’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 속에서 이들에 대한 그릇된 편견들을 깨뜨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주신 것은 곧 더불어 사랑하며 살라는 명령이다. 또한 현 장애인들 중 후천적 장애인이 80%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미래의 장애인 혹은 그의 가족이며 ‘장애인 문제’는 나의 문제임을 시사한다.⁸³⁾ 이것을 위해서는 목회자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다. 아무리 현대 목회와 목회자상이 급격하게 변모한다 해도, 교회에 미치는 목회자의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하다. 따라서 한 교회의 목자가 지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그에 근거한 목회 방침은 장애인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목회자는 이 문제에 대해 선도적인 지식과 관심을 지니으로써 교회를 적극적이고도 창조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야 한다.⁸⁴⁾

2. 장애인 욕구 조사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실태 조사이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83) 이동혁, 앞의 글, 27.

84) 안교성, “장애인은 목회의 문제이다”. 『교육교회』170호(서울:장로회신학대학, 1990), 90.

가지는 것은, 이것이 선행될 때 교회가 어떻게 장애인을 도와야 할지가 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있으며, 또 그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면서 그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료를 만든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장애인의 욕구는 장애인이 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간의 장애인 프로그램에 관하여 교회에서 언급된 것들을 검토해 볼 때, 대부분의 계획이나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장애인들의 욕구(needs)나, 급한 것들 또는 피할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장애인의 욕구를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장애인들을 도우면 그것이 장애인 선교요 복지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 욕구들에 대해서 조사해보든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장애인들의 욕구는 전혀 고려해보지도 않고 '주는 쪽' 나름대로 추상적으로 유추하여 결정한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게 된 경우, 그것은 주는 쪽의 일방적인 자기 욕구 만족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선교와 복지를 제대로 실시하려면, 교회가 규정한 욕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세울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규정한 욕구에 따라 세우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⁸⁵⁾

3. 편의 시설 설치

장애인들이 교회 건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회 건물을 개선하는 것도 장애인 선교에서 인식 개선 못지 않게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다. 교회 안에 출입구, 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 전용 화장실과 전용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건물에서 이동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회 계단은 점자판을 부착하고 턱이 있는 곳에는 발

판을 설치한다. 특히 새로 건축을 하는 교회는 반드시 편의시설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편의시설에는 예산문제가 많이 거론되지만, 오히려 편의시설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으므로 돈은 더 적게 든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대 시설들은 사실 노인과 어린이에게도 몹시 필요한 것들이다. 그리고 이미 지어진 건물이라면 교회 안의 모든 공간을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이 어렵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교회 소유가 아닐 경우에도 최대한 편의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장애인들이 유용하게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⁸⁶⁾ 영동교회는 원래 엘리베이터가 없는 교회였다. 그런데 몇 해 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손봉호 장로의 변(辯)이 인상적이다. “그러나 장애인 한 명이 그것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이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⁸⁷⁾ 모든 교회가 이런 인식만 가질 수만 있다면 교회의 편의 시설 설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4. 장애 아동의 교회 교육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통합(Integration)은 중요하다. 교육에 있어 그것은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이는 교회 안에 장애 아동 부서나 학급을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차별이라고 본다. 그러나 정신 지체 아동이나 청각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 부서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장애에 따른 요구들에 적합한 기독교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적인 구별이다. 학습 장애 아동이나 정서 장애 아동(자폐증을 제외한), 언어 장애 아동, 시각 장애 아동, 지체 장애 아동의 경우는 이들의 교회 교육과 관련된 학문적 뒷받침을 받아 비장애 아동들과 함께 교육하는 것이 바람

85) 송재천, “교회의 장애인복지 프로그램과 선교”, 『제3기 재가장애인 선교복지요원양성훈련』(서울:한국밀알선교단, 1993), 60. 참조.

86) 이동혁, 앞의 글, 30. 참조.

87) 손봉호, 앞의 책, 57.

직하다. 그러나 의사 소통이나 전달 방법에 있어서 전문화가 요구되는 정신 지체 아동, 자폐 아동, 청각 장애 아동 등은 별도의 부서가 존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겠다.⁸⁸⁾

장애 아동들에 대한 교회 교육은 그 가족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확실한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주중 교육뿐 아니라 주일 예배만 열어도 동일하게 얻는 '장애인 세계'에 대한 대표적인 선교 효과가 된다. 교회는 교회대로 순수한 신자들을 얻을 수 있고, 교인들은 교사나 자원봉사자로 장애인 교육과 선교에 직접 참여하며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할 수 있어서 좋다.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일뿐 아니라 교회 내에서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이 떳떳하게 아이를 교육시키고 나아가 비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를 보도록 이끌어내는 데에도 이들 대상의 교육과 예배는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각 교회마다 필수적으로 개설되어야 한다고 본다.⁸⁹⁾

5. 장애 아동 조기 교실 운영

발달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학습 능력 발달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시기는 출생에서 첫 4년간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성인 능력의 학습 능력의 약 50%가 이 시기에 형성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아동에게 교육적 자극이 풍부한 환경을 마련해 주면 아동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이론이 성립된다. 더구나 장애인은 장애 발생 당시부터 교육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늦게 시작하는 것보다 장애 경감이나 치료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더 효율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장애아동의 조기교육 기회의 확대와 확대와 어릴 때부터 통합 교육을 시키는 것

이 바람직하다.⁹⁰⁾ 장애 아동들의 경우 장기적인 교육이 없으면 정상적인 기능마저도 퇴행되고 부정적인 문제 행동으로 발달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영유아기 때의 교육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통합교육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교육을 받은 장애아동은 그만큼 사회 통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장애인 가정 중에는 생활이 어려워 부득불 맞벌이를 해야 하거나 엄마 혼자서 생계를 꾸려가며 아이를 키워가는 가정이 많다. 그런 아이들은 어디에 맡길 곳도 없고 없어 방에 묶어 두고 일을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가정의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과 탁아소가 절실히 필요한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교회가 이를 담당하면 매우 유익할 것이다. 장애아동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길은 교회의 끊임없는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둔 교육과 지지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 때 더욱 뚜렷해지리라 생각한다.

6. 재가(在家) 장애인⁹¹⁾과의 자매 결연과 가정방문

우리 주변에 많은 장애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을 잘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사회적 편견과,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편의시설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교회가 재정적인 원조를 해야 한다.⁹²⁾

88) 진은현, "장애아동의 교회교육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1994), 48.

89) 위의 글, 47.

90) 이준우, 앞의 글, 51.

91) 재가 장애인이란, 말 그대로 복지 시설이 아닌 집에 있는 장애인을 의미한다. 국가 혹은 임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아닌 가정, 병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다시 말해 지역사회 안에 있는 장애인(the Handicapped in the Community)을 말한다.

92) 이동혁, 앞의 글, 27.

특히 생활 보호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경제선급 이상의 장애인에게 있어 물질적인 도움은 절실히 요구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구제활동들이 생활 보호 대상자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내의 구역 조직을 활용하여 1구역 1가정 돌보기, 구역 헌금으로 장애인 가정 돕기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다양한 가정을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다.⁹³⁾

그리고 장애가 심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심부름, 외출, 간단한 학습지도, 말 벗 등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사실 장애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은 장애자녀로 인하여 외부 활동에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⁹⁴⁾ 특히 중증장애아동을 가진 부모일수록 더욱 힘들다. 이런 가정에 주중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대신 돌보아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7. 시설 방문

제가 장애인을 방문하여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 장애인들을 찾아가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는 대부분 일회적인 방문이거나 지속적이라 하더라도 거의 시혜적인 차원이다. 이제는 이러한 형식적인 방법을 배제하고 평생을 두고 관계를 다져나가야 하고 최소한 직접 몸을 부대끼는 만남이 되어야 한다. 전술한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자원하여 섬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 제가 장애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설 장애인과도 자매 결연을 맺는 것이 좋다. 이것을 통해 형제애를 구체적으로 나누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설 생활에서 올 수 있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해소시키며 건전한 정서발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93) 이계윤, "교회와 장애인", 「제가장애인선교복지학교」, (서울:한국밀알선교단, 1994), 14.

94) 이준우, 앞의 글, 52.

8. 함께 예배드리기

청각 장애인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관심만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수화 예배, 특히 수화 설교가 가능하다면 정말 좋다. 만약 수화로 하기가 당장 힘들다면 그 날의 설교 내용을 미리 준비하여 주보에 싣든가 아니면 따로 준비해 두어야 한다.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점자 주보, 성경책, 찬송가, 기타 성경 교재들이 교회에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점자 번역을 하는 봉사 단체들이 꽤 있으므로 교회 내에서 역량이 안 되더라도 이들의 도움을 얻으면 쉽게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로하신 어른이나 환자들을 위하여 성경, 찬송 테이프를 준비하는 것처럼 이들을 위한 점자 자료들의 준비는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예배실 구조도 이들을 고려한 모양이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뻥뻥하게 긴 의자들로 가득 찬 예배실에서 뇌성마비 장애인들은 불편하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지금의 구조에서는 맨 뒤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우리 지역에 이런 장애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교회는 그를 생각해야 한다. 그 해당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의 구성과 특성에 맞게 예배실 구조를 바꾸어 보자. 의자의 앞뒤 간격·편한 의자 구비, 의자의 옆 간격·휠체어 한 대 정도는 거뜬히 지나갈 수 있게 한다. 이 간단한 변화는 노인들에게도 이로울 것이다. 아울러 교회가 휠체어 몇 대를 구비하여 교회 내에서 장애인과 노인들이 이용하게 하면 한결 좋을 것이다.

특히 중증 장애인이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중증 장애인에게 있어 작은 욕구의 충족도 커다란 기쁨이 된다. 단 이들은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에도 이러한 억압된 감정을 해소

할 기회가 적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예

배는 더욱 중요하다.⁹⁵⁾

교역자는 그 지역 실태 조사에서 만났던 장애인들의 가정을 우선적으로 심방해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교회의 턱이 높아 좌절하는 장애인이 그 지역에 적어도 한 사람은 꼭 있다. 이것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한 교역자의 의무이다.⁹⁶⁾

9. 장애인 주일 지키기

매년 4월 셋째 주일을 장애인 주일⁹⁷⁾로 지키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주간에 장애인을 생각하는 기간으로 정하여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본다. 교회 경사로 설치, 성경, 찬송 등을 점자로 번역하기, 장애인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교회 내부적으로 재교육하고 또 지역 사회에 홍보하여 무료 강좌 실시, 교회와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필요한 사람에게 전동 휠체어 등 각종 보조기기를 선물하기 - 이런 것들은 관심만 있다면 실천이 가능한 것들이다. 이런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있다면 장애인들을 찾아가 우리 교회로 초대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일회적인 초대에 그치고 말지도 모른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어느 주일 아침에 장애아를 둔 부모가 그 어린이와 함께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온다면 그것이 우리의 큰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⁹⁸⁾

10. 장애아 부모 성경 공부

장애아 부모들은 대부분 장애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선천적 장애일 경우가 더욱 그렇다. 한 가정에

장애아가 나면, 부모뿐 아니라 온 가족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된다. 이 충격은 선천적 장애가 원인 불명일 경우 더욱 복잡한 심리 현상을 불러 일으킨다. 부모는 “왜?”라는 해결할 수 없는 의문 속에서 고민하게 된다. 양육 과정에서도 부모가 깊어져야 하는 부담은 실로 크다.⁹⁹⁾ 때론 극도의 심리적 불안과 수치심으로 자신이 낳은 자식을 부정하기도 한다. 지금 기르고 있는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도무지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병원의 실수가 아니면 누가 고의로 아기를 바꾸었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확대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사회에는 장애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로 장애아를 낳은 산모를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집안에서만 아니고 지역 사회에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수치심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내쫓기거나 모자 동반 자살이라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에 관한 미신이 만연해 있는 것도 문제이다. 서구에서는 그것이 성스러운 계시나 혹은 나쁜 징조라는 식으로 만연되어 왔다. 또한 임신부의 이상한 체험이라든가 짐승이나 짐승과의 관계, 혹은 운명이나 선조들의 앙화(殃禍), 윤회설 등과 같은 것에 관련이 있다는 미신이다. 그리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유전’이라는 과학적인 미신이 생겼다. 사실 장애 발생 원인 중에는 유전에 의한 것도 있다. 보다 정확하게는 유전자의 문제라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인간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은 환경 파괴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에 관한 잘못된 인식은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것이겠지만, 동시에 잘못된 인간관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다.¹⁰⁰⁾

이런 경우에 처해 있는 장애아 부모들의 의식을 교정하고 위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성경 공부를 통해 그것이 가능

95) 이계윤, 앞의 글, 13.

96) 이동혁, 앞의 글, 28.

97)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인데, 장애인의 날을 보내고 돌아오는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지키기도 한다.

98) 위의 글, 29. 참조.

99) 아라이 다카시, 앞의 책, 65.

100) 위의 책, 65.

하리라 본다.

11. 시각·청각 장애인 부모의 자녀들을 위한 야학 프로그램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 자신의 어려움은 이겨나갈 수 있지만 자녀들에게까지 어려움을 안겨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적인 자기 희생을 통해서라도 자녀의 잘됨을 보려고 한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를 도와야 하는 경우가 있다. 동시에 양육을 받아야 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없기도 하다. 그 이유는 부모 자신이 장애인이며, 장애인 부부의 가정 대부분이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장애인 가정의 자녀들의 학습 지도를 무료로 도와줄 수 있다면 이 또한 장애인 부모들에게 한시름을 덜게 하는 좋은 일일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애인 부모로 인한 고민과 걱정거리를 함께 상담하여 주고, 동시에 신앙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또한 장애인 선교의 한 영역을 감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규 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한 중증 장애인들의 학업을 지속적으로 도와서 그들의 학구열을 승화시켜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많은 사람과의 대화를 즐거워하게 되면, 다음 문제는 공부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당신은 무엇이 되기 위하여 공부하십니까?”하는 질문보다 “무슨 공부를 하고 싶으십니까?”하는 질문을 장애인은 받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만학도(晩學徒)일 수 있다. 혹 중간에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시작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 법칙은 장애인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먼저 시작하라.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자!” 이것이 장애인에 가장 필요한 대답이다.¹⁰¹⁾

101) 이계윤, 앞의 글, 14.

12. 장애 체험을 통한 장애인 이해

장애인 선교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자기 손에 바늘이 찔리지 않는 한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로 합리화하곤 한다. 그렇다고 장애인이 되라고 기도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어려움을 한번 정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장애인을 도우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1) 1시간 이상 말하지 않고 대화하며, 1시간 뒤에 나누었던 대화 내용 확인 하기
- (2) 볼륨을 끄고 텔레비전이나 좋은 영화, 비디오 시청하기 그리고 내용과 줄거리 나누어 보기
- (3) 다리를 각목으로 묶어 100M 달리기
- (4) 눈을 가리고 행보하기, 케인(흰 지팡이)을 짚고 정해진 길 찾아 오기
- (5) 휠체어 타고 시장 보기, 달리기, 지하철 타고 일정한 지점에서 만나기
- (6) 장애인과 함께 걷기
- (7) 장애인 돕기 1일 바자회
- (8) 장애인 무료진료
- (9) 장애인과 함께 연극·찬양의 잔치 공연, 장애인과 함께 가두 캠페인
- 장애인과 함께 노방·축호 전도하기
- (10) 장애인 초청 간증 듣기¹⁰²⁾

102) 위의 글, 15.

13. 그룹홈(Group Home)

· 그룹홈¹⁰³⁾은 장애인들의 탈시설화를 통한 사회 복귀 추세에 따라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일본에서는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2년도 장애인 복지 사업의 하나로 소집단 가정제를 도입하여 93년부터 이를 대폭 확대시키기로 함으로써 장애인을 집단 격리 수용하는 복지 정책에서 탈피하여 집단 가정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룹홈(Group Home)이란 지역 사회 내에 있는 보통 주택(아파트, 맨션, 독립주택)에서 소수의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그들의 능숙치 못한 일들을 전문 직원에 의해서 원조를 받는 생활 형태이다. 집단 가정의 근본적인 목적은 가족적인 환경 속에서 독립적인 생활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며 장애 정도 및 특성에 따라 더욱 독립적인 생활의 장으로 옮길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과도기적 훈련장이라고 할 수 있다.¹⁰⁴⁾

그룹홈은 장애인의 자율성을 향상시키며 장애인과의 연결을 통해 장애인과 부모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할 수 있는 잇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역 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전문가와 보호자들이 그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그룹홈 거주자들은 대규모 시설 거주자들보다 지역 사회에 더 잘 적응하며, 직업 기술과 행동에 변화를 보였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태도에서도 거부감이나 편견보다는 그룹홈을 도울 수 있는 보고가 있다.¹⁰⁵⁾

한국 교회는 이 그룹홈을 운영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교회가 열린 마음으로 그룹홈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103) 어떤 단체에서는 복지홈이란 말로 변용해서 쓰기도 한다.

104) 주정옥, "집단가정의 운영과 실제", 「제3기 재가장애인선교복지요원양성훈련」(서울:한국말일선교단, 1993), 85-86.

105) 위의 글, 101.

14. 전문 사역자 양성

한국 교회가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쓰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여러 증거들을 통해 나타난다. 많은 교회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교회 안에 장애부서를 마련하기도 한다. 그리고 각 교단마다 총회 안에 장애부서를 두는 움직임도 서서히 일고 있다. 그리고 여러 선교회를 통해 섬김의 열매도 많이 맺어가고 있다. 또한 장애인 사역에 헌신하려고 하는 젊은이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늘 문제가 되는 것은 훈련 과정과 헌신에 있어서 척박한 사역비 문제이다. 그래서 장애인 선교를 하는 사람에게는 사역비 후원에 대한 기도가 중대한 문제가 된다. 하지만 많은 후원자들은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물질적 서비스만 고려하고 있을 뿐, 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전문가, 이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연구하는 사람들, 장애인 선교를 홍보하고 사람들을 계몽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 대한 배려가 적은 실정이다. 장애인 사역에 헌신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며, 때로는 대학원과 유학과정을 거쳐서 더욱 전문적인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한 더욱 심층적인 투자가 희박하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많은 제자를 통하여 일을 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대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이 부분의 투자가 적으면 결국 장애인에게 전달되는 복음과 복지 서비스는 후진성을 면치 못할 것이며, 결국 장애인 선교 단체는 급중하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 선교를 실천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은 재정적인 투자뿐 아니라 외적인 투자 특히 전문적인 사역자들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눈앞에 전달되는 서비스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애인들의 총체적인 재활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야 한다. 심지어는 전문성을 띠지 못하고 오히려 매일 어둡고 낙후된 장애인 사역만을 고집하

는 사람들은 장애인 사역을 포기하도록 하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장애인 선교 단체라는 낙인보다는 늘 새롭게 발전하고 더욱 전문성이 두드러지는 장애인 선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전문 사역자 양성과 이들의 사역 자체에 대한 기도와 투자가 있어야 한다.¹⁰⁶⁾

15. 기타 프로그램-사경회, 캠프

이 밖에 교회가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들의 영적 도전을 위해 사경회를 여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캠프를 열 수도 있다.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만나보지 않고는 어렵다. 사경회나 캠프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러기에 사경회나 캠프, 특히 장애인 캠프는 장애인 선교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체험을 통해 알 수 있듯 그 기대 효과는 매우 크다. 교회는 선교 단체와 협력해서 규모있고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¹⁰⁷⁾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장애인 선교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분석하며 장애인 선교를 위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살폈다.

106) 이계윤, 앞의 글, 16.

107) 언젠가 시골에서 사역하는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장애인 선교 사역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군.” 과연 그런가? 여기에 소개된 프로그램들은 어쩌면 지엽적인 것에 불과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것은, 몇 번이나 강조하는 것이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장애인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다.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 거기에서 모든 것은 출발한다.

다원화 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장애인 선교가 강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미 우리가 살갓듯이 현대 사회에서 장애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로 돌릴 것이 못 된다. 그것은 사회 전체의 문제요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이다. 오늘날을 사는 현대인들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예비 장애인”이란 말을 쓰기도 한다. 지금 장애를 입지 않은 사람은 다행히 장애를 입지 않고 살고 있을 뿐 언제라도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속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바로 자신에 대한 관심일 수 있다는 논리가 선다. 이제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때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나라에서는 장애를 입은 사람을 “불행한 사람”으로만 단정짓고 외면하여 왔다. 관심의 표현도 “불쌍한 사람”을 위한 자선적·구빈적 차원에 머물러 왔다. 주는 사람의 입장만 선행으로 나타나며 받는 사람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¹⁰⁸⁾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시피 초대 한국 교회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의료를 통한 선교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60-70년대 산업사회를 거치오면서 능력있는 사람만이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고, 세상의 차별의식, 배금주의 등이 알게 모르게 교회 안으로 스며들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눈은 세상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목회자들은 교회 성장에 열을 올렸으며, 그런 과정에서 소외된 자들을 돌아볼 여유조차 가지지 못하였다. 이런 와중에 자유주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게 되었다. 이것은 복음적이라고 자처하는 보수주의가 자신만의 관심에 몰두함으로써 기형의 신학이 생겨나게끔 방조했던 것이나 다를 것이 없다.

108) 이준우, 앞의 글, 1. 참조.

성경에서 발견하는 선교는 단순히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예수의 선교 방법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보수주의 교회들은 영적 구원에만 온 전력을 쏟아부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대한 교회의 무관심이 커져갔다. 사회에 대한 한국 교회의 무관심은 어찌면, 누가 지적했듯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나 영적인 것만을 중요시한 결과라기보다는 병든 영성과 축복된 죄악의 표현인지 모른다. 만일 그 진단이 정확한 것이라면 한국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한 숫적 성장보다 영적 각성과 회개일 것이다.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는 일일 것이다.¹⁰⁹⁾

나의 욕구(needs)에 이웃의 필요를 맞추는 것은 참된 사랑과 관심이 라고 말할 수 없다. 진정한 관심은 이웃의 욕구에 마음을 두는 것이다. 장애인 선교회의 당위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의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다.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합이라고 한 장애인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다(요9:3). 그러면서 예수님은 일생 이 땅에 소외받은 자들과 함께 하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소외된 자들을 포함한, 이 땅 모든 자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다.¹¹⁰⁾

109) 양낙홍, 앞의 글, 159-160. 참조.

110) 어떤 이는 장애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의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먼저 내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역지사지(易之思之)라고 생각한다. 즉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사랑은, 이런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역지사지의 마음이 아니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 중에 머물며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 위에 오셨다(빌2:5-8).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에서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친히 그것을 감당하셨던 것이다. 물론 역지사지는 측은지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측은지심에만 머문다면 문제가 있다. 측은지심이 역지사지로 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식에 장애인과 같은 소외받은 자들이 과연 있었는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한국 교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며 회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외받은 자들에 대한 참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는 장애인 선교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무관심, 그릇된 인식을 불식하고 장애인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선교를 위해 애쓰는 장애인 선교 단체와 협조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장애인 선교에 있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 남아있는 턱을 없애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 자유롭게 교회를 드나들며 일반인과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모습일 것이다.

어질 때 참 사랑이 되는 것이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 친구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엿보게 된다. 그들은 처음 중풍병자의 처지를 측은히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를 들것에 싣고 예수님께로 간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 가는 길이 막혔을 때, 그들은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달아내린다. 역지사지의 마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그러므로 역지사지에는 용기나 희생이 요구된다 하겠다.